광주 학생 60%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몰라

초·중·고교 학생 역사 인식 설문 조사

광주서 조직적 발생 인식도 45.4%로 낮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60.8%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 1345명과 중학교 2학년 학생 1211명, 고등학교 1학년생 1344명 등 3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5개교 등 총 80개 학교에서 17개 항목의 학생독립운동 관련 역사인식 지표에 대해 5월부터 8월까지 사전 자료조사와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역사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에 대해 39.2%가 '알고 있다', 60.8%는 '모른다'고 답했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지난해부터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돼 치러진다는 사실도 24.4%만 알고 있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단에 대해서는 68.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광주에서 학생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45.4%에 불과했다.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국가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43.1%로 집계됐다.

학생들의 역사기념관 또는 역사박물관 방문 경험은 85.1%로 나타났다. 방문횟수는 3~4회가 29.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방문은 조사된 학생의 40.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35.3%에 비해 다소 올랐지만 전체 학생 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결과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이번 학생독립운동 역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미흡한 점은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념회관 관계자는 "향후 광주형자유학년제와 연계한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역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매맞는 119구조대원'

광주·전남 6년간 43건

광주·전남에서 최근 6년간 43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006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2018년 5건, 올해 7월까지 1건 등 총 18건이 발생했다.

폭행사건으로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은 인원은 2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급대원 중 남성은 20명, 여성은 2명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음주가 17건, 기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폭행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5명, 기타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14년 6건, 2015년 11건, 2016년 3건, 2017년 3건, 2018년 1건, 올해 7월까지 1건 등 총 25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33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9명이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음주가 22건, 기타가 3건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처럼 대한민국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이 18일 오후 해병대 1사단에서 공수기초훈련을 받고 있다. 대표선수들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강인한 해병대 정신으로 재무장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입소해 해병대원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간 17.9% 더 늘어

정인화 의원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었고, 피해 아동은 3천 6백명을 넘었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 2016년 1,083건, ▲ 2017년 1,261건, ▲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2016년 59건 → 2018년 92건, 증가율 55.9%), ▲ 대전(27건 → 37건, 37%), ▲ 충북(33건 → 45건, 36.4%), ▲ 경기북부(59건 → 79건, 33.9%), ▲ 대구(35건 → 46건, 31.4%) 순으로 늘어났다.

반면, 광주는 2016년 46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3건으로 28.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가 줄어든 지역으로 파악됐다.

뉴스1

"노상방뇨 쳐다본다" 남성 5명 주먹다짐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노상방뇨'가 시비가 돼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씨(32)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노상에서 A씨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B씨(22)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서로 주먹을 휘둘러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 일행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싸움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상방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술 취해 차에 소화기 뿌린 50대 "기억 안나"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소화기를 차량에 뿌려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광주 양동시장 인근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2대에 소화기를 뿌려 재산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시장 인근을 지나던 A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전통시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지하철 1호선 30분간 운행 지연

광주 지하철 1호선이 전력공급 문제로 30여분간 운행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8일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7분쯤 용산차량기지 선로 전봇대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지하철 전력 공급에 이상이 생겨 1호선 상·하행선 열차10편이 가다서다를 반복,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응급복구반을 긴급 투입해 30분 만에 운행을 정상화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자신 집과 전 남편 가게 등 3곳 방화 40대 女

이혼한 남편이 운영하는 마트와 사는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범행 전 경기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45·여)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 1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같은날 오후 11시 55분쯤 이혼한 남편이 살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다세대 주택(2층)에 이어, 18일 0시 10분쯤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와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이 나자 효성동 다세대 주택 주민 4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중 주민 B씨(20)는 우측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주민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A씨는 전 남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스티로폼 등에 불을 붙인 후 주방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불을 지른 것 같다"며 "술을 마신 상태라 술이 깬 후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